



지구온난화 이슈에서 낙인에 미치는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 ‘감정기반 낙인모델’의 적용과 확장

박혜영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부 박사과정 *

김영욱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일반인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발생 원인 또한 알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낙인을 찍게 되며 이와 관련한 낙인은 예방 행동의도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부정적 감정’을 강조한 낙인모델(Peters, Burraston & Merts, 2004)을 적용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를 구조적 모형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업/국가의 3개 범주로 낙인을 설정한 경우, 3개 모델 모두 기존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 모델에서,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영향력 또한 가장 큰 것을 확인했다. 둘째, ‘인지적 평가’를 통한 ‘부정적 감정’의 핵심적 역할을 밝혔다. ‘부정적 감정’은 ‘낙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위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지적 평가를 통한 ‘부정적 감정’은 ‘정서’보다 ‘위험 인식’,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셋째, 개인변수인 ‘세계관’과 ‘감정반응성’은 ‘정서’, ‘중요’ 등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관’, ‘감정반응성’에서 ‘행동의도’로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지구온난화 낙인 대상에 따른 위험 인식 과정의 경로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행동의도’ 변수를 추가하고,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등 기존 낙인모델을 적용 및 확장하였다는데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지구온난화, 낙인모델, 세계관, 위험 인식, 기후변화

* cheerupyou@naver.com

** kimyw@ewha.ac.kr, 교신저자

1. 연구 목적

IPCC¹⁾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0년 간 0.7도 이상 상승하였으며, 평균 해수면 역시 40mm 이상 높아졌으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 전에 비하여 38% 증가하였다(기상청, 2010). IPCC는 지구온난화²⁾의 주범으로 화석 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를 지목했다. 이에 대하여 기후변화 회의론자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동의하지 않아왔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과학의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으며(Ravetz, 2011), IPCC는 지구온난화를 과장하고 있는 ‘정치적 조직’이라고 폄하했다(Giddens, 2009). 그러나 기후변화는 명백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있다. 1993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과학저널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928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연구가 기후변화의 인위적 원인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지지, 영향 관계, 완화를 위한 제안 등을 다루고 있었다(Oreskes, 2004).

한 편 1997년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가 간 이행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탄소의 배출은 매년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의 한 지역에서 탄소 배출을 절감한다 하여도,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 발전은 그 이상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 전 세계적 동의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2009년 190개국 이상이 참여한 코펜하겐 회의에서 참여 국가들은 온실기체 배출감축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새로운 협정을 내놓지는 못했다(Silver, 2012).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회의에서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비교적 쉬운 조치만을 약속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은, 기후변화의 원인, 예측 등에 관한 과학적 논쟁 외에도 국가 간 성장과 정책을 둘러싼 자국의 보호 등 정치적 논쟁까지 항시 갈등 국면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야말로 위험 요소에 대한 지식 증가와 자발적 공중 참여의 증가로 인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혼란함이 가중될 수 있는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위험 이슈라고 말할

1)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IPCC는 정기적으로 전 세계의 과학자 집단이 참가하여 기후변화 추세, 원인, 생태학적·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본 연구에서 대체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Boykoff, 2007). 그러나 기상청(2010)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의 세부적인 한 부분이며,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빙하 면적, 해수면의 높이 등 다양한 기후에 있어 그 특성의 변화를 뜻한다.

수 있다(Beck, 1986, 1997).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중 간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은 올바른 위험 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김영옥, 2008).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9%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60%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아시아경제, 2016, 10, 31). 이처럼 일반인은 지구온난화 이슈에 있어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거나 기후변화에 곧 적용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로 일관하며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개인적 행동의도는 지극히 미미하다(기후변화센터, 2010; 통계개발원, 2011; Brechin, 2010).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영향력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지구온난화 이슈만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기도 하며(Leiserowitz, Maibach & Roser-Renouf, 2011),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언론의 책임이기도 하다(Boykoff, 2008; Boykoff & Boykoff, 2004; Zehr, 2000). 혹은 지구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원인일 수도 있다(Ding, Maibach, Zhao, Roser-Renouf & Leiserowitz, 2011).

본 연구는 일반인이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반인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를 지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는 대상을 낙인³⁾ 찍고 있다. 낙인은 단순히 위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조건을 파괴하는 동시에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위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설명된다(Slovic, 2000). 즉, 낙인화는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Jenkins-Smith, 2001) 위험 사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 ‘조직’, ‘지역’ 등에 연관되어 연상되게 하는 작용을 한다(Goffman, 1963; Gregory, Flynn & Slovic, 1995). 사회는 위험 인식과 관련한 낙인에 있어서 누군가 책임 대상을 찾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취해왔으며(Douglas, 1992), 어떠한 대상에게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낙인을 씌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로 정부/대기업과 같은 대상들이 책임 대상이 되었다(Douglas & Wildavsky, 1982).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낙인의 대상을 개인/기업/국가의 3개 범주

3) 낙인에 대한 현대적 관점은 어떤 대상의 완전하고(whole) 평범한(usual) 속성을 부정하고, 더럽혀지고(tainted) 가치가 떨어지는(discounted) 것으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사회과학 연구로 논의되어왔다(Goffman, 1963; Jones et al., 1984).

로 상정했고, 각각의 범주에서 낙인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인의 위험 인식에 있어 지구온난화라는 이슈는 개인·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온난화 자체가 전 지구적 문제로 국가 간 협의와 정책이 좌우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이러한 국가 간 협의에서는 한 국가의 문화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적인 가치가 광범위하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Renn, 1992), 위험 인식이 한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공통의 필요, 가치, 경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영옥, 2008). 개인 성향 역시 중요한데, 이는 위험 인식에 있어서 개인의 걱정 수준, 이슈 관련 인지도 등에 따라 설득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 관련 이슈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김경진·김영옥, 2017; Ockwell, Whitemarsh & O'Neill, 2009).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낙인이 지구온난화 예방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세계관과 감정반응성을 통하여 형성된 감정이 위험과 낙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연구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1) 기후변화 관련 선행 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인종, 연령, 교육수준 등이 논의되었다 (Dunlap & McCright, 2008; McCright, 2010; McCright & Dunlap, 2011a; O'Connor, Bord, & Fisher, 1999; Zia & todd, 2011). 여성이 남성보다(O'Connor, Bord, & Fisher, 1999; Zia & todd, 2011) 유색 인종이 백인 보다(McCright & Dunlap, 2011a) 소득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McCright & Dunlap, 2011a) 그리고 연령 (McCright, 2010),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Dunlap & McCright, 2008)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변수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논의에서 감소 추세에 있다(박희제·허주영, 2011).

기후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학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 수 있다(O'Connor, Bord & Fisher, 1999; Zia & todd, 2011).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수준과 인식에 대한 것은 대부분 측정 항목이 비슷하다(Wynne, 1995).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환경 지식수준을 환경 인식의 하위 차원으로 보기도 하였다(Dunlap & Johns,

2000).

또한 기후변화 인식에 있어 정치적 성향은 주요한 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는 개인의 자유, 재산권 보호, 작은 정부 등을 추구하고 진보주의는 시장에 대한 규제, 공공재 보호 등을 강조한다. 온실 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며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로 국가를 뛰어넘는 규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시장 및 개별 국가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보수 성향과 충돌을 야기한다(박희제·허주영, 2011). 따라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하여 회의적일 수 있다(McCright & Dunlap, 2011a; Zia & Todd, 2011).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에 사회의 변화를 무시하려고 하며 백인남성효과(white male effect)를 야기한다. 백인남성은 환경에 대한 위협 인식이 낮으며 환경적으로 위험한 것을 수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질서 체제를 가진 백인남성들이 위계적이면서 보수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환경에 대한 위협을 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경적 위험을 무시하게 된다(Slovic, 1999). 이처럼 기존 논의를 통해 정치적 성향, 세계관, 자연을 보는 시각 등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인식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기존에 논의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미디어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관련 메시지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O'Connor, Bord & Fisher, 1999; Rabinovich & Morton, 2012; Zhao, Leiserowitz, Maibach & Roser-Renof, 2011).

뉴욕타임즈 등 미국 4개 일간지 분석 결과 언론의 보도 균형 원칙이 오히려 지구온난화 보도에 있어 편견을 조장하였음이 발견되었다(Boykoff, 2004). 절반 이상의 미국 언론보도가 지구온난화 보도에 있어 인위적 원인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에 의한 변화 역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었다. 미국 언론보도에 있어 저널리즘 규범 준수가 지구온난화에 관해 정보 편향적 보도에 치중하게 하였고, 지구온난화 관련 적극적 행동 추구 등 공동체적 가치를 담은 과학적 담론 형성에는 실패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국내 일간지의 기후변화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CO₂)' 등 기후변화 관련 기사를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하여 지난 보도빈도 누계치에 있어 '사실 나열형' 뉴스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8년부터 '행동조직화형' 뉴스프레임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혀 기후변화에 있어 인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경제성장 개발논리의 보수언론과 경제분배 보존논리의 진보언론의 구도가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김학수·조성겸, 2009). 기후변화에 있어 한겨레신문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여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기후변화 관련 기사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정치·사회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기후변화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하였으며, 중앙일보 역시 친정부적, 친기업적 태도로 이들의 책임 소재 보다는 입장을 대변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미디어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변화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연구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미디어 연구가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론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었다(Schäfer & Schlichting, 2014). 한편,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일반 대중의 과학에 대한 믿음과 과학적 메시지 스타일을 조화시켜, 성공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되었다(Rabinovich & Morton, 2012). 이는 과학의 불확실성이 항상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면 메시지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기후변화를 두고 전문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관리하기 위해 과학적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학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집단과 과학에 있어 토론을 중시하는 집단에 있어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관련 위험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중 매체는 여전히 지구온난화 주제를 과학적 논란과 논쟁으로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Kellstedt, Zahran & Vedlitz, 2008). 또한 지구온난화 이슈에 있어 일반인의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의 정보력, 기후 과학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개인 효능감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는 지적도 있다(Kellstedt, Zahran & Vedlitz, 2008). 정보력, 과학자에 대한 신뢰, 개인적 효능감은 위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응답자는 지구온난화를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구온난화 자체에 관심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자와 일반 대중 간의 상호 작용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며,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개 토론의 중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일반인의 기후변화 관련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인식조사와 기후변화 정책 지지 조사 등으로 진행되었다(박희제·허주영, 2011). 기후변화에 대하여 한국인은 응답자의 97%가 기후변화가 매우 혹은 다소 심각함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대상 22개국 중에 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Pew Research Center, 2010). 이것은 2008년 환경부의 전 국민 의식조사에서 90% 이상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

식은 세계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환경부, 2008; Pew Research Center, 2010; Brechin, 2010). 앞선 조사 결과에서 한국인은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산업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에 52.8%가 동의하였다. 이렇듯 한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응에는 낙관적이었고,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산업 제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박희제·허주영, 2011).

이처럼 기후변화 관련한 개인적 행동의도에 대해서 인식과 행동, 태도와 행동 간의 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지식 부족’, ‘불확실성’, ‘정보 불신’, ‘책임 전가’ 등의 개인적 요인들과 ‘정부와 기업의 실천 부족’, ‘무임승차 효과’ 등의 사회적 요인이 소개되었다(Lorenzoni, Nicholson-Cole & Whitmarsh, 2007).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에게 나타나는 인식과 태도/행동의 간극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된 지구온난화 관련 인식조사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며,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행동에 있어서 소극적인 이유는 지구온난화 관련 인식이 평가 및 해석되는 과정에서 ‘책임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Lorenzoni, et al, 2007). 또한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이미 진행된 연구에서 책임 전가 등이 특정 대상의 행위에 대한 낙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이에 대한 경로를 알아보고, 이를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와 연결해보고자 하였다.

2) 낙인모델 관련 변수와 선행연구

(1) 세계관

세계관은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사회 조직의 일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Dake, 1991, 1992). 집단성과 위계성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문화세계관을 구분할 수 있는데 위계주의·평등주의·개인주의·운명주의가 있다(Douglas & Wildvsky, 1982). 위계주의자들은 집단의 권위와 규범에 순응하고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평등주의자들은 사회문화적 규범을 인정하지 않으며 위험과 관련해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자들은 집단 보다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험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등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운명주의자들은 사회로부터의 제한에 순

응적이며 위험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김영옥(2014)은 ‘위계주의’는 자연을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며 ‘평등주의자’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주의’는 자연과 개인이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적으로 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운명주의자’는 자연을 변덕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연을 보는 시각은 위험 인식과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선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위험에 대하여 다른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Langford, Marris & O’Riordan, 1999). 실제 개인의 위험 인식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으므로 역시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다(Dake, 1992). 이렇듯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의하여 형성된 특정한 패턴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이론 관련 연구들은 개인의 위험 인식에 대한 위험 평가를 과소평가하기 보다는 개인의 세계관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더욱 강조하고 있다(Brenot, Bonnefous & Marris, 1998). 특별히 원자력 사안에 있어서도 평등주의, 위계주의, 개인주의의 세계관이 정서 및 위험인식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Siegrist, 1999). 피터와 슬로비치(Peter & Slovic, 1996)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있어 세계관이 중요 변수임을 밝혔다. 세계관과 인지적 평가의 연관성 때문에 그간 원자력 연구에서는 세계관이 부정적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위험에 대한 정보가 평가 및 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세계관은 부정적 감정 및 위험 인식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델(Peter, Burraston & Merts, 2004)이 논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세계관은 사회문화적 요인이지만 개인적 변수로 활용되어 논의되고 있다(이나경·임혜숙·이영애, 2008; 이현주·이영애, 2011; Peter, Burraston & Merts, 2004). 일반인과 전문가의 위험 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전문가는 ‘세계관’에 의하여, 일반인은 ‘신뢰’에 의하여 위험 지각이 더 잘 설명되었다(이나경·임혜숙·이영애, 2008). 한편 낙인모델에서는 ‘세계관’과 ‘감정반응성’이 ‘인지적 평가 요소’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으며(Peter, Burraston & Merts, 2004)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관’이 ‘신뢰’에 주는 영향 또한 연구되었다(이현주·이영애, 2011). 본 연구에서는 문화세계관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세계관은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과학 기술 등을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게 지각하는 등 사고의 기본 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현주·이영애, 2011).

(2) 감정반응성

감정적 반응의 강도에 있어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감정반응성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행동과 정서를 설명하는데 있어 행동 억제 시스템(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과 행동 활성화 시스템(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이 있다(Gray, 1981, 1982). 행동 억제 시스템(BIS)의 부정적 감정반응성은 위험 인식에 있어 중요하다. 그레이(Gray, 1981, 1982)는 행동 억제 시스템(BIS)이 '처벌', '비보상', '새로움'에 민감한데, '처벌'이나 '비보상', '새로움' 등은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이끌 수 있으므로 행동을 억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반응성이 높은 개인들은 예상되는 처벌에 대하여 전보다 예민해지며(Carver & White, 1994), 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 감정반응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위험을 인식하게 된다(Gasper & Clore, 1998). 행동 억제 시스템이 높은 사람은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또한 그러한 상황을 피하도록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 감정반응성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부정적 감정을 경유하여 위험 인식이나 낙인 반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Peter, Burraston, & Merts, 2004).

(3) 인지적 평가

최근의 위험 연구에서 감정은 위험 인식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이것은 감정 휴리스틱 관련 연구(Affect Heuristic)로 개인이 위험을 판단할 때 감정 및 직관에 의존하며, 이는 경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본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즉, 사람들은 감정적 판단을 통하여 사고하므로 감정적 반응이 이성적 판단 및 행동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감정이 인지에서 우선한다는 이론이 과정이론(Process theories)이며(Slovic et al., 2004), 인지적 평가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인지적 평가 이론(Appraisal theories)이다(Forgas, 1994). 인지적 평가 이론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Peter, Burraston & Merts, 2004).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었는데 감정에 대한 인지가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Lazarus, 2001), 개인이 느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석 등을 추론할 수 있으며(Smith & Ellsworth, 1985), 감정을 정보처리, 지원, 경영, 행동, 모니터링 등 5단계를 통해 처리되는 정서적 과정이라 여겼다(Scherer, 1984). 이처럼 감정에 대한 인지적 이론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적 평가 과정 혹은 해석이 감정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Karasawa, 1995; Lazarus, 2001; Peter,

Burraston & Merts, 2004). 그러나 감정과 인지적 노력의 인과 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만 흐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김영옥, 2014).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에 대한 공중의 반응은 ‘좋다’ 혹은 ‘나쁘다’ 보다는 훨씬 복잡한 감정을 포함하기에 위험에 있어 형성되는 ‘감정’은 ‘예측’ 혹은 ‘대처’와 같은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한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Ellsworth & Scherer, 2003; Smith & Ellsworth, 1985; Karasawa, 1995). 따라서 위험은 인지적이면서, 평가 혹은 해석을 통해서 사고하는 감정으로 논의되고 있다(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관련 위험 인식에 있어, 개인 심리적 요인이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기반 낙인모델’(Peter, Burraston & Merts, 2004)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4) 낙인모델

낙인모델(Peter, Burraston, & Merts, 2004)은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세계관’과 ‘감정적 반응성’의 변수가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평가’와 ‘부정적 감정’이 ‘위험 인식’과 ‘낙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설명한다. ‘인지적 평가’를 위한 요인으로서는 ‘중요성’, ‘대처’, ‘인과성’, ‘정서’가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평가’가 ‘부정적 감정’인 분노와 공포, 회피 등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감정이 ‘위험 인식’ 및 ‘낙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낙인모델(Peters et al., 2004)의 핵심이다. ‘낙인’은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Jenkins-Smith, 2001), 유카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있어 갖은 노력에도 ‘낙인’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Easterling, 2001). ‘낙인’의 강력한 효과 때문에 과학적 메시지의 일방적 설득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Flynn, Slovic, & Mertz,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형성된 ‘낙인’을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와 연결시키는 매개적 역할로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구온난화 낙인 대상에 대하여 그간의 언론보도 및 경험을 통하여 인지적 평가과정을 수반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었으며, 이 ‘부정적 감정’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기반 낙인모델’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자아 효능감과 행동의도

아젠(Azen, 1991)과 반두라(Bandura, 1977)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자아 효능감’ 변수를 설명하였는데, 대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자아 효능감’을 통하여 효과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효능감’은 기회, 제약 조건 등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Bandura, 1982). 자아 효능감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어떠한 과업에 대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정의된다.

확장된 병행과정 모델(EPPM,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Witte, 1992)에서는 예방 행동에 대해서 인지된 위협과 인지된 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 낮은 위협에 대해서는 위협을 예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되지 않지만 중간 이상의 위협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높은 위협에도 효능감이 낮다면 이를 회피하고자 하며, 효능감이 높다면 위협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방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확장된 병행 과정 모델(EPPM)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변수가 효능감이다. 이 모델에서 효능감 변수는 자기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으로 구분하였는데, 자기 효능감은 위협을 방지하도록 하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반응 효능감은 위협 행동을 중단하는 메시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았다(Witte, 1994). ‘자아 효능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며, 위협과 불확실성에 의해서도 회피보다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Prentice-Dunn & Rogers, 1986; Ruiter, Abraham, & Kok, 2001).

행동의도는 행동의 가장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에 대해 노력할 것이며 행동의도는 결국 행동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행동을 이끄는 가장 즉각적이며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행동의도를 말한다(Parcel, 1984). 이성적 행동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특정 행동은 행동의도로 설명할 수 있으며,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및 주관적인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Ajzen & Fishbein, 1980).

위험 인식과 기후변화 관련 해결을 위한 행동의도와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O'Connor, Bord & Fisher, 1999)에서 위험 인식, 지식, 정부 정책 지원, 개인적 행동의도, 일반적 환경 신념, 인구 통계학적 변수 등이 예측변수로 활용되었다. 위험 인식은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며, 위험 인식은 일반적인 환경 신념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행동의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이슈 관련 많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신념이 행동의도를 예측한다고 설명하지만 특정한 위험 인식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O'Connor, Bord, & Fisher, 1999). 또한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지구온난화 발생 원인을 학습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Blaum, Griffin, Wiley & Britt, 2017).

이처럼 기후변화에 관한 행동의도는 복잡하다(O'Connor, Bord & Fisher, 1999). 한국

인의 대다수는 기후변화의 내용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후변화에 인간이 곧 적응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위한 예방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개발원, 2011; Brechin, 2010). 반면, 미국인들은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다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 인식을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국가 및 국제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여러 탄소세 제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serowitz, 2006).

4) 연구가설 및 연구 문제

‘세계관’은 사회문화적 요인이지만 개인적 변수로 위험 인식에 있어 주요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으며(이나경·임혜숙·이영애, 2008; 이현주·이영애, 2011; Peter, Burraston & Merts, 2004) ‘감정 반응성’ 역시 같은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반응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크게 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Gasper & Clore, 1998), 지구온난화 이슈에서도 위험 인식에 있어 ‘세계관’과 ‘감정 반응성’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위험 인식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인지적이면서, 평가 혹은 해석을 통해서 사고하는 감정이므로(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어떤 대상이나 사건,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인지적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Karasawa, 1995; Lazarus, 2001).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반영된 피터와 동료들의 ‘낙인모델’을 한국적 상황에서 검증해보았다.

낙인모델(Petes et al., 2004)에서는 위험에 대한 관점에 있어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세계관’, ‘감정 반응성’이 지구온난화 낙인 대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낙인 대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감정’을 매개하여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를 적용하여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으로 낙인모델을 개인/기업/국가의 3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행동의도라는 변수를 최종변수로 추가하였다. 지구온난화 관련 이슈에서 낙인화 과정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개인/기업/국가가 낙인 대상일 때, 3개 범주에 대한 차이점, ‘자아 효능감’의 조절 효과 등도 함께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가설 1-1. ‘위계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평등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운명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개인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감정반응성'은 인지적 평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위계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중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평등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중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운명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중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개인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중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감정반응성'은 인지적 평가의 '중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위계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평등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운명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개인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개인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의 '인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감정반응성'은 인지적 평가의 '인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정서'는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부정적 감정'은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정서'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중요'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3. '대처'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4. '인과'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1. '정서'는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2. '위험 인식'은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3. '부정적 감정'은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낙인'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1. 세계관·감정반응성에서부터 행동의도까지 경로에서 어떠한 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낙인’은 ‘위험인식’/‘부정적 감정’과 ‘행동의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위험인식’, ‘낙인’, ‘행동의도’의 매개효과에서 ‘자아 효능감’ 고저집단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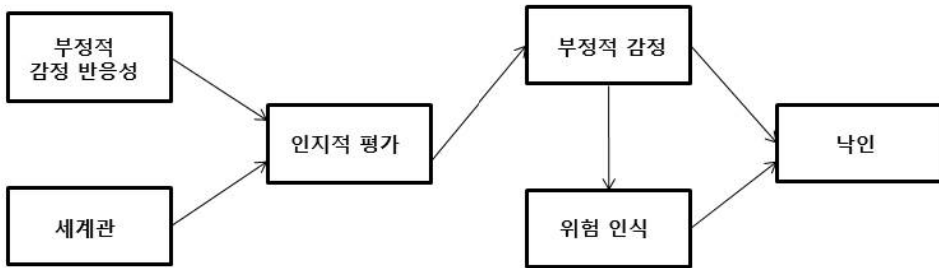


그림 1. 감정 기반한 낙인모델

3.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2017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만든 이후, 설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기관에 소속된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간략한 소개, 조사 대상자의 동의란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 문항은 개인/기업/국가 범주에서 각 3개 아이템, 변수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 없는 3개 아이템 등 총 12개 아이টে으로 구성하였다. 총 12개 아이টে에 대하여 ‘정서’, ‘중요’, ‘대처’, ‘예측’, ‘부정적 감정’, ‘위험 인식’, ‘낙인’에 관련한 25개 문항⁴⁾이 의미평정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12번 반복 설문되었다. 이에 더하여 ‘세

4) Peters 등(2004)이 낙인모형에서 정서 부분을 검증하는데 사용한 문항들을 그대로 혹은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내용은 용어 등을 낙인 대상에 알맞게 수정한 것으로 대부분 피터와 동료들의 연구의 척도를 그대로 차용했다(참

계관', '감정반응성', '행동의도'도 측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총 332명으로 남성이 165명(49.7%), 여성이 167명(50.3%)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72명(21.7%), 30대가 63명(19.0%), 40대가 66명(19.9%), 50대가 86명(25.9%), 60대 이상이 45명(13.6%)이었다.

2)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낙인 대상을 '개인', '기업', '국가'로 범주화하였는데, 개인/기업/국가의 특정 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지적 평가(정서, 중요, 대처, 인과, 예측)', '위험 인식', '부정적 감정', '낙인' 등을 측정하여 각각의 모델을 구현하였다. 각 모델의 3개 아이тем은 개인/기업/국가 범주에 서만 진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상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척도는 피터와 동료들의 연구(Peters et al., 2004)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낙인 대상이 '개인' 범주일 때, '경유차를 타는 사람', '종이컵·종이를 함부로 쓰는 사람', '난방이나 냉방 기구 사용 시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차이를 지나치게 벌리는 사람'의 3개 아이тем으로 구성하였다. 낙인 대상이 '기업' 범주일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 '친환경 규제를 어기거나 친환경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속이는 기업'을 아이тем으로 설정하였다. 낙인 대상이 '국가' 범주일 때는 '기후 협약에 반대하는 국가', '기후 협약 국가로 참여하였지만 규제를 어기는 국가', '자국의 성장을 기후변화보다 우위에 두는 개발도상국' 3개 아이тем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생 변수인 '세계관', '감정 반응성', 종속 변수인 '행동의도'의 척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사용된 변수의 척도

구분	설문 문항	참고
세계관	위계주의 1)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규율이 필요하다. 2) 국가에 대한 의무에 동의한다. 3)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 4) 나는 일반 사람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에 보다 엄격하다. 5) 우리가 현재 가진 것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	Dake(1992), Breont, Bonnefous, Marris(1998)
	평등주의 1)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다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사회 문제는 덜 심각할 것이다. 2) 더 많은 번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3) 가난한 국가와 부자 국가 간의 차별은 옳지 않다. 4) 우리 사회는 평등권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 5) 인종 차별은 이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고, <부록 2>).

구분	설문 문항	참고
	운명주의 1) 장기적 관점에서 당신에게 호통을 치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쓸데가 없다. 2) 협력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3) 나는 종종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 4)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5)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므로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다.	
	개인주의 1) 공정한 제도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벌 것이다. 2) 이 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위에 설 것이다. 3) 어떤 이가 부를 축적하면, 그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4) 사회 복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막는다. 5) 열심히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 결과가 달라서 다행이다.	
감정 반응성	1) 기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다소 화난 상태가 되곤 한다. 2) 나는 실수할 것을 걱정한다. 3) 비판이나 꾸지람은 나를 상처 받게 한다. 4) 나에게 누군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면, 걱정되거나 당황한다. 5)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좀처럼 두렵거나 긴장되지 않는다. 6)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7) 나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두려움을 덜 느낀다	Carver & White(1994), Peters et al(2004) 재인용
행동의도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협약에 찬성할 것이다. 2) 기후변화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3) 기후 협약 정책에 동의하는 정치 지도자를 지지할 것이다. 4)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5) 기후변화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O'Connor, Bord, & Fisher(1999) 에서 변형 사용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활용된 프로그램은 m-plus 7.0과 SPSS 22.0 버전이다. 본 연구 자료의 데이터 처리, 기술통계,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 등은 SPSS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관련 모델의 평가, 매개효과 검정, 모델의 동일성 검정, 다집단 분석 등은 m-plus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으로 구성된 모델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수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정을 위하여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개인/기업/국가 범주를 모델링하여⁵⁾ 모델 간 차이점을 분석해보았으며 낙인화가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행동의도’ 변수를 최종 종속

5) 낙인모델(Peters et al., 2004)에서는 다양한 아이টে별로 변수를 측정한 후, ‘낙인’ 정도에 따라 아이টে를 구분하고 낙인화가 심한 아이টে들만 활용하여 이들의 합산 점수로 경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기업/국가 범주별로 아이টে를 3개씩 측정하였으며 범주 간 신뢰도를 확인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각각 모델링하였다.

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낙인’의 ‘위험 인식’과 ‘행동의도’에 대한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검토해 보았으며 위험커뮤니케이션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자아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라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집단분석을 통하여 확인해보았다.

4. 연구 결과

1) 변인 간 관계

개인, 기업, 국가 범주에서 지구온난화 이슈와 관련한 ‘낙인’, ‘위험인식’, ‘부정적 감정’과 ‘정서’, ‘중요’, ‘대처’, ‘인과’, ‘예측’ 등 ‘인지적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표 2>와 같았다. 전체 아이টে 가운데 지구온난화에 대한 낙인화 정도가 가장 심한 아이টে은 ‘친환경 규제를 어기거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속이는 기업’이었다. 가장 ‘낙인’ 점수가 낮은 아이টে은 ‘경유차를 타는 사람’이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지만 다른 아이টে과 비교해보기 위한 용도로 설문조사에 포함시킨 ‘기말과제를 내지 않는 학생’ 보다 낮은 점수였다. 낙인 대상들을 각 범주별로 합산한 결과⁶⁾, ‘낙인’ 점수는 ‘국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 ‘개인’의 순이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한 경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참고 <표 3>, <표 4>, <표 5>, 모든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는 <부록 1>로 첨부). 본 연구에서도 낙인모텔(Peters et al., 2004)과 동일하게 감정 기반의 인지적 평가 중 ‘예측’은 관련 변수와의 관련성이 적어 모텔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른 변인은 관련성이 나타나 개인/기업/국가 각각의 모텔링을 통해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참고 <표 3>, <표 4>, <표 5>).

표 2. 개인/기업/국가별 낙인, 위험 인식, 부정적 감정 그리고 인지적 평가

낙인 대상	낙인	위험인식	부정적 감정	감정의 인지적 평가				
				정서	중요	대처	인과	예측
경유차를 타는 사람	2.8630	2.9960	2.7741	3.1431	3.2500	2.8690	3.0889	3.3042
종이컵·종이를 함부로 쓰는 사람	3.4714	3.5914	3.3411	2.2304	3.5678	3.1883	3.0723	3.0256
난방이나 냉방 기구 사용시, 실내온도와 실외온도의 차이를 지나치게 벌이는 사람	3.5171	3.6616	3.3712	2.2952	3.6205	3.1687	3.0971	3.0723
개인 낙인 대상 평균	3.2830	3.4163	3.1625	2.5562	3.4792	3.0750	3.0869	3.1344

6) 개인, 기업, 국가 범주의 아이টে의 범주별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0.7 이상이였다.

낙인 대상	낙인	위험인식	부정적 감정	감정의 인지적 평가				
				정서	중요	대처	인과	예측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 경이지 않은 기업	4.2224	4.2751	4.0422	1.7229	4.1160	3.4021	3.3110	2.9202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	3.7540	3.9558	3.6800	2.1280	3.7937	3.2530	3.2485	2.8705
친환경 규제를 어기거나 친환경 경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속이 는 기업	4.3569	4.3956	4.2907	1.5196	4.3087	3.5346	3.2515	2.7018
기업 낙인 대상 평균	4.1111	4.2084	4.0047	1.7906	4.0729	3.3969	3.2703	2.8302
기후 협약에 반대하는 국가	4.0949	4.1958	3.9232	1.8584	4.0346	3.3027	3.3012	2.7515
기후 협약 국가로 참여하였지 만 규제를 어기는 국가	4.2194	4.2440	4.1461	1.7108	4.1581	3.3660	3.2989	2.5873
자국의 성장을 기후변화보다 우위에 두는 개발도상국	4.1938	4.3183	4.1032	1.8178	4.1340	3.2922	3.3110	2.6581
국가 낙인 대상 평균	4.1693	4.25267	4.0575	1.7956	4.1089	3.3202	3.3037	2.6656
기말 과제를 내지 않는 학생	3.2274	3.0412	3.3622	2.0693	3.3840	3.1687	3.0211	2.7952
아이를 돌보지 않는 젊은 부부	3.8619	3.8574	3.9164	1.6536	3.9488	3.4111	3.1355	2.6024
길가에 똥을 싸 강아지	3.6401	3.5472	3.6438	1.8780	3.4985	3.2334	3.2756	2.7093

표 3. 변인 간 상관관계 개인에게 낙인한 경우

	개인 낙인 대상				
	감정 반응성	세계관			
		평등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위계주의
낙인	.180**	.287**	-.020	.097	.089
위험 인식	.248**	.298**	-.004	.122*	.030
부정적 감정	.085	.187**	.084	.127*	.121*
정서	-.174**	-.237**	.091	-.129*	-.019
중요	.220**	.340**	-.051	.103	.099
대처	.049	.138*	-.127*	-.006	.036
인과	.104	.143**	.005	.012	-.018
예측	.111*	.082	-.051	-.039	-.083

*p < .05, **p < .01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기업에게 낙인한 경우

	기업 낙인 대상				
	감정 반응성	세계관			
		평등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위계주의
낙인	.241**	.447**	-.253**	.288**	.054
위험 인식	.268**	.462**	-.279**	.264**	.042
부정적 감정	.217**	.441**	-.184**	.267**	.062
정서	-.250**	-.396**	.289**	-.252**	-.002
중요	.261**	.448**	-.267**	.241**	.069
대처	.132*	.231**	-.228**	.002	-.082
인과	.201**	.295**	-.026	.139*	.087
예측	.103	-.062	.000	-.102	-.007

*p < .05, **p < .01

표 5. 변인 간 상관관계 국가에게 낙인한 경우

	감정 반응성	국가 낙인 대상			
		세계관			
		평등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위계주의
낙인	.267**	.436**	-.272**	.297**	.096
위험 인식	.295**	.460**	-.285**	.295**	.062
부정적 감정	.225**	.404**	-.216**	.284**	.081
정서	-.265**	-.412**	.255**	-.221**	-.065
중요	.248**	.353**	-.273**	.250**	.106
대처	.167**	.177**	-.219**	.036	.000
인파	.123*	.218**	-.056	.116*	.095
예측	.038	-.111*	.073	-.117*	-.063

*p < .05, **p < .01

2) 연구가설 검증(가설 1-1 ~ 가설 8)

본 연구의 가설은 낙인모델(Peters et al., 2004)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개인/기업/국가 의 각 범주별로 모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가설 검증 결과, ‘기업’ 범주 로 낙인한 모델(이하 기업 모델)은 가설 1-1, 가설 2-4, 가설 3-1, 가설 3-4, 가설 6-3, 가설 6-4의 6개를 제외한 총 20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국가’ 범주로 낙인한 모델(이하 국가 모델) 은 ‘기업’ 모델 보다는 적은 19개, ‘개인’ 범주로 낙인한 모델(이하 개인 모델)은 14개 가설이 채 택, 개인 모델이 3개 모델 중 가장 적은 수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개인 모델보다, 기업 및 국가 모델이 더욱 많은 가설이 채택된 것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이슈에 있어 낙인 대상이 기업 및 국 가일 때 인지적 평가를 통한 부정적 감정의 형성이 위험 인식, 낙인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감정 기반 낙인모델’(Peters et al., 2004)의 논리에 보다 합치됨을 알 수 있었다.

표 6. 각 모델의 경로계수 비교

구분	직접효과	표준화계수		
		개인 대상에게 낙인	기업 대상에게 낙인	국가 대상에게 낙인
가설1-1	위계주의 → 정서	-0.024	-0.006	-0.090
가설1-2	평등주의 → 정서	-0.152**	-0.268***	-0.327***
가설1-3	운명주의 → 정서	0.067	0.237***	0.209***
가설1-4	개인주의 → 정서	-0.060	-0.132*	-0.071
가설1-5	부정적 감정반응성 → 정서	-0.113*	-0.133**	-0.108*
가설2-1	위계주의 → 중요	0.134*	0.100*	0.122*
가설2-2	평등주의 → 중요	0.315***	0.366***	0.262***
가설2-3	운명주의 → 중요	-0.024	-0.215***	-0.236***
가설2-4	개인주의 → 중요	-0.028	0.075	0.101

구분	직접효과	표준화계수		
		개인 대상에게 낙인	기업 대상에게 낙인	국가 대상에게 낙인
가설2-5	부정적 감정반응성 → 중요	0.101*	0.108*	0.113*
가설3-1	위계주의 → 대처	0.085	-0.022	0.049
가설3-2	평등주의 → 대처	0.146**	0.217***	0.163**
가설3-3	운명주의 → 대처	-0.126*	-0.206***	-0.207***
가설3-4	개인주의 → 대처	-0.086	-0.081	-0.052
가설4-1	개인주의 → 인과	0.001	0.117*	0.103
가설4-2	부정적 감정반응성 → 인과	0.104	0.188***	0.112*
가설5-1	정서 → 위험 인식	0.143	-0.177*	-0.127*
가설5-2	부정적 감정 → 위험 인식	1.302***	0.881***	0.837***
가설6-1	정서 → 부정적 감정	-0.251***	-0.233***	-0.254***
가설6-2	중요 → 부정적 감정	0.435***	0.653***	0.625***
가설6-3	대처 → 부정적 감정	0.050	0.021	0.082**
가설6-4	인과 → 부정적 감정	0.011	-0.019	-0.010
가설7-1	정서 → 낙인	-0.136***	-0.162***	-0.204***
가설7-2	위험 인식 → 낙인	0.417***	0.534***	0.447***
가설7-3	부정적 감정 → 낙인	0.459***	0.307***	0.375***
가설8	낙인 → 행동의도	0.197***	0.405***	0.471***

*p < .05, **p < .01, ***p < .001

(1) 개인 모델

개인 모델의 경우, '평등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 중 '정서', '중요', '대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 $\beta = -0.152$, $p < .01$, 중요: $\beta = 0.315$, $p < .001$, 대처: $\beta = 0.146$, $p < .01$). '위계주의' 세계관은 '중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134$, $p < .05$) '운명주의' 세계관은 '대처'에만 영향을 미쳤다($\beta = -0.126$, $p < .05$). '개인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 중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정 반응성'은 '정서'와 '중요'에 영향을 미쳤다(정서: $\beta = -0.113$, $p < .05$, 중요: $\beta = 0.101$, $p < .05$).

인지적 평가 중 '정서'와 '중요'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정서: $\beta = -0.251$, $p < .001$, 중요: $\beta = 0.435$, $p < .001$) 반면 '대처'와 '인과'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정적 감정'은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나($\beta = 1.302$, $p < .001$) 인지적 평가의 '정서'는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p값이 0.55로 어느 정도의 유의미성은 보여주었다.

'정서', '위험 인식', '부정적 감정'은 모두 '낙인'에 영향을 미쳤으며(정서: $\beta = -0.136$, $p < 0.001$, 위험 인식: $\beta = 0.417$, $p < .001$, 부정적 감정: $\beta = 0.459$, $p < .001$) '낙인' 또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0.197$, $p < .001$). 이 때 '부정적 감정'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서'와 비교할 때 약 3배 정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지

적 평가를 통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낙인 효과가 더욱 큼을 알 수 있었다. '낙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동의도'를 6 퍼센트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종 결과변수인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업 모델

기업 모델에서는, '평등주의' 세계관이 인지적 평가 중 '정서', '중요',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 $\beta = -0.268$, $p < .001$, 중요: $\beta = 0.366$, $p < .001$, 대처: $\beta = 0.217$, $p < .001$). 또한 '운명주의' 세계관 역시 '정서', '중요', '대처'에 영향을 미쳤다(정서: $\beta = 0.237$, $p < .001$, 중요: $\beta = -0.215$, $p < .001$, 대처: $\beta = -0.206$, $p < .001$). '평등주의' 세계관과 '운명주의' 세계관은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등주의' 세계관은 '정서'와 음의 방향으로, '중요'와 '대처'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운명주의' 세계관은 '정서'와 양의 방향, '중요'와 '대처'에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위계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 중 '중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100$, $p < .05$) '개인주의' 세계관은 '정서'와 '인과'에 영향을 미쳤다(정서: $\beta = -0.132$, $p < .05$, 인과: $\beta = 0.117$, $p < .05$). '부정적 감정 반응성'은 '정서', '중요', '인과'에 영향을 미쳤다(정서: $\beta = -0.133$, $p < .01$, 중요: $\beta = 0.108$, $p < .05$, 인과: $\beta = 0.188$, $p < .001$).

인지적 평가 중 '정서'와 '중요'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정서: $\beta = -0.233$, $p < .001$, 중요: $\beta = 0.653$, $p < .001$) 반면 '대처'와 '인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개인 모델과 동일한 결과이다. '부정적 감정'은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881$, $p < .001$) 인지적 평가의 '정서' 또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77$, $p < .05$). 인지적 평가의 '정서'와 '부정적 감정'이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절대값으로 비교해 볼 때, '부정적 감정'이 훨씬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정서': $\beta = -0.177$, '부정적 감정': $\beta = 0.881$). 이는 위험은 인지적이면서, 평가 혹은 해석을 통해서 사고하는 감정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기존 논의(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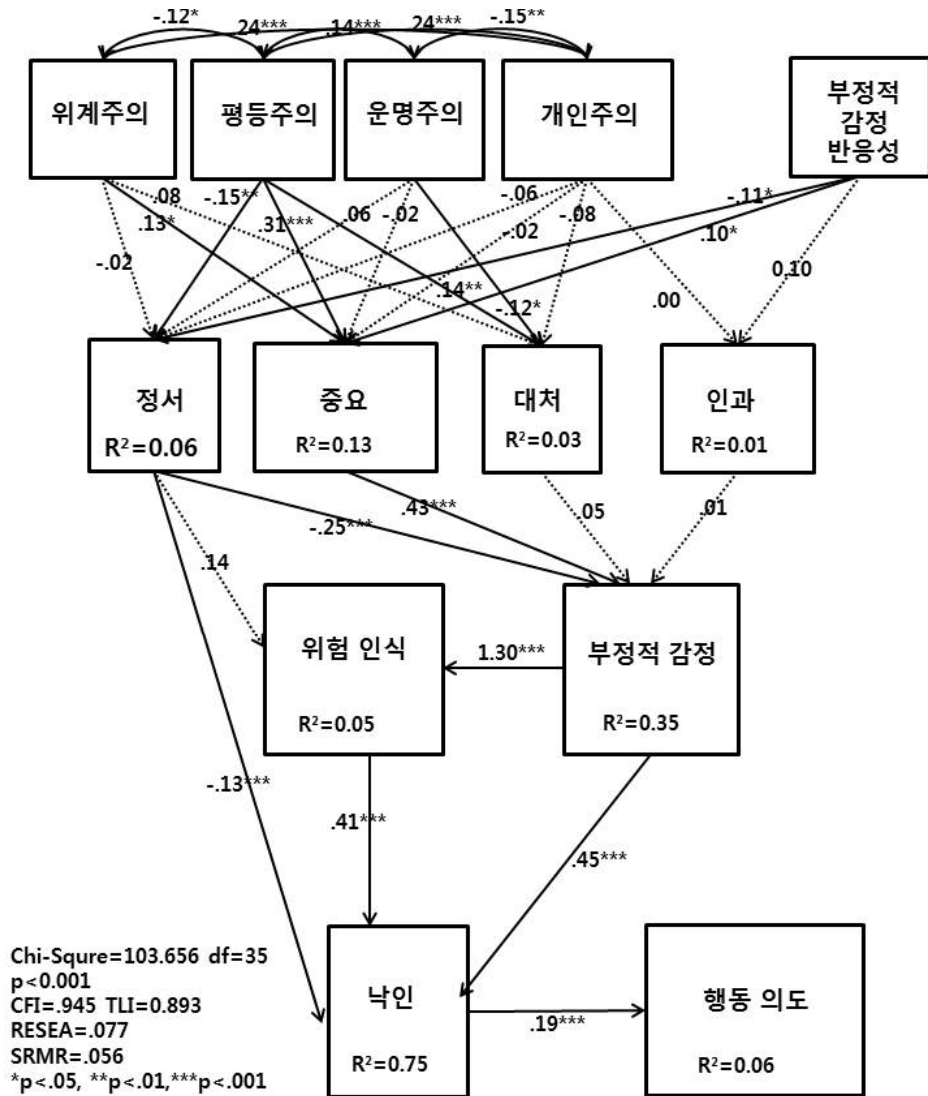
'정서', '위험 인식', '부정적 감정'은 모두 '낙인'에 영향을 미쳤으며(정서: $\beta = -0.162$, $p < .001$, 위험 인식: $\beta = 0.534$, $p < .001$, 부정적 감정: $\beta = 0.307$, $p < .001$) '낙인' 또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0.405$, $p < .001$). '낙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동의도'를 22 퍼센트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모델보다는 설명력이 확보되었다. 지구온난화 낙인 대상을 통한 '행동의도'를 촉구하는 메시지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낙인은 개인 보다 기업에 적용되어 논의될 때 보다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가 모델

국가 모델에서 '평등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 중 '정서', '중요', '대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 $\beta = -0.327$, $p < .001$, 중요: $\beta = 0.262$, $p < .001$, 대처: $\beta = 0.163$, $p < .01$). '운명주의' 세계관은 '정서', '중요', '대처'에 영향을 미쳤다(정서: $\beta = 0.209$, $p < .001$, 중요: $\beta = -0.236$, $p < .001$, 대처: $\beta = -0.207$, $p < .001$). '평등주의' 세계관과 '운명주의' 세계관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부호가 반대이며 이는 기업 모델과 같은 결과이다. '평등주의' 세계관은 '정서'와 음의 방향으로, '중요'와 '대처'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운명주의' 세계관은 '정서'와 양의 방향, '중요'와 '대처'에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위계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 중 '중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122$, $p < .05$) '개인주의' 세계관은 인지적 평가 중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정적 감정 반응성'은 '정서', '중요', '인과'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정서: $\beta = -0.108$, $p < .05$, 중요: $\beta = 0.113$, $p < .05$, 인과: $\beta = 0.112$,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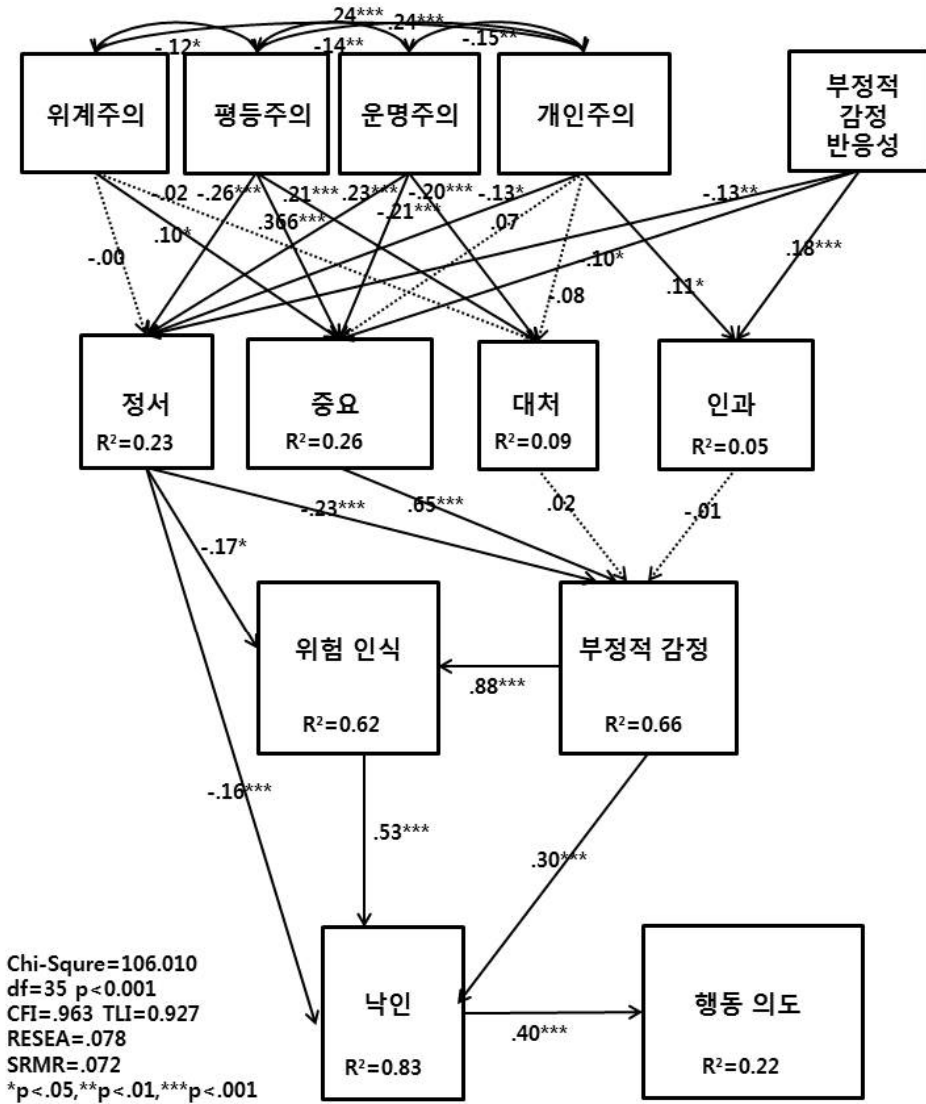
인지적 평가 중 '정서', '중요', '대처'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정서: $\beta = -0.254$, $p < .001$, 중요: $\beta = 0.625$, $p < .001$, 대처: $\beta = 0.082$, $p < .01$) '인과'는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업 모델과 다른 결과로 국가 모델의 경우 '대처'도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감정'은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837$, $p < .001$) '정서' 또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27$, $p < .05$). 국가 모델에서도 '부정적 감정'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서'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컸다.

'정서', '위험 인식', '부정적 감정'은 모두 '낙인'에 영향을 미쳤으며(정서: $\beta = -0.204$, $p < .001$, 위험 인식: $\beta = 0.447$, $p < .001$, 부정적 감정: $\beta = 0.375$, $p < .001$) '낙인' 또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beta = 0.471$, $p < .001$). '낙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동의도'를 28 퍼센트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는 기업 모델보다도 설명력이 높았다. '낙인'을 통한 '행동의도'를 추구하는 메시지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낙인 대상은 개인 보다 기업, 기업 보다 국가가 적용되어 논의될 때 보다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겠다. 영향력 역시 표준화 계수가 0.471로 국가가 낙인 대상일 때가 개인 및 기업인 경우보다 컸다(개인: $\beta = 0.197$, 기업: $\beta = 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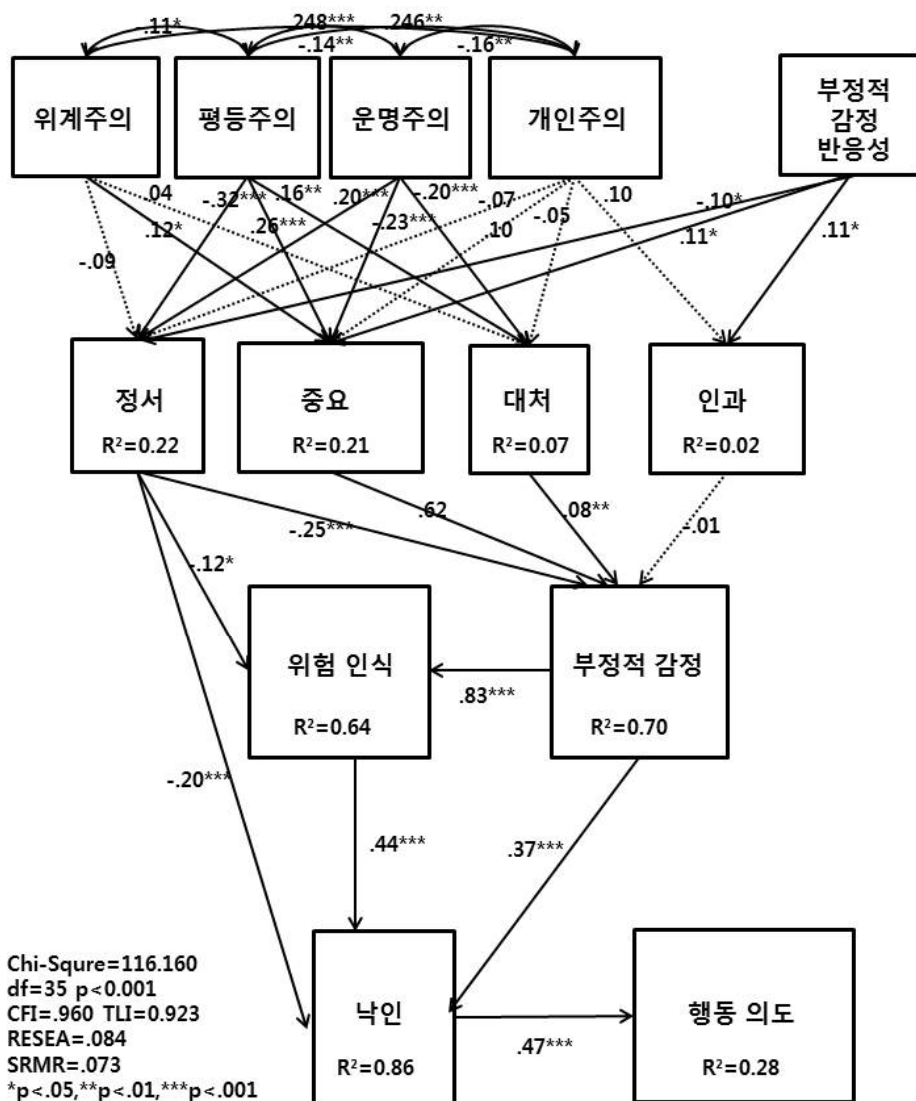
낙인대상이 '개인'인 경우

그림 2. 낙인의 개인모델



낙인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림 3. 낙인의 기업모델



낙인대상이 '국가'인 경우

그림 4. 낙인의 국가모델

3) 〈연구문제 1〉 세계관과 감정반응성의 간접효과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적 변수인 ‘세계관’·‘감정반응성’이 ‘인지적 평가’를 통해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세계관’, ‘감정반응성’이 ‘부정적 감정’, ‘위험인식’, ‘낙인’, ‘행동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관계는 살펴보기 않았지만, 가설이 채택된 경로에 대해서 간접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았다(〈연구문제 1〉). 분석 결과, ‘세계관’, ‘감정반응성’ → ‘행동의도’에 대한 간접 효과는 〈표 7〉로 제시하였으며 간접효과가 나타난 경우 이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 모델에서 가설이 채택된 경로 중 2개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2개 경로는 ‘감정반응성 → 정서 → 부정적 감정 → 위험 인식 → 낙인 → 행동의도’와 ‘평등주의 → 대처 → 부정적 감정 → 위험 인식 → 낙인 → 행동의도’이

표 7. 모델별 간접효과 검증

모델	경로	부스트래핑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신뢰도 하한 -2.5%	신뢰도 상한 +2.5%
개인	평등주의 → 중요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15**	0.006	0.015**	0.004	0.026
	평등주의 → 정서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12*	0.006	0.012*	0.001	0.024
기업	운명주의 → 정서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12*	0.005	-0.011*	-0.021	-0.002
	평등주의 → 중요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46***	0.012	0.046***	0.023	0.070
	운명주의 → 중요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30**	0.009	-0.027**	-0.047	-0.012
	감정반응성 → 중요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15*	0.007	0.013*	0.001	0.029
	평등주의 → 정서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15*	0.007	0.015*	0.000	0.029
	운명주의 → 정서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10*	0.005	-0.009*	-0.020	-0.001
국가	위계주의 → 중요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13*	0.006	0.013*	0.002	0.024
	평등주의 → 중요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29**	0.011	0.029**	0.008	0.050
	운명주의 → 중요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29**	0.009	-0.026**	-0.046	-0.012
	감정반응성 → 중요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14*	0.006	0.012*	0.001	0.026
	운명주의 → 대처 → 부정적 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03*	0.002	-0.003*	-0.006	0.000

*p < .05, **p < .01, ***p < .001

다. ‘감정반응성’과 ‘평등주의’의 개인적 변수가 각각 ‘정서’와 ‘대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연구문제 2> 낙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낙인’이 ‘위험 인식’과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를 매개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문제 2>). 개인/기업/국가 모델에서, ‘위험 인식’ → ‘낙인’ → ‘행동의도’에 대한 매개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개인: $\beta = 0.082$, $p < .01$, 기업: $\beta = 0.216$, $p < .001$, 국가: $\beta = 0.211$, $p < .001$). 또한 ‘부정적 감정’ → ‘위험 인식’ → ‘낙인’ → ‘행동의도’에 대한 매개 효과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개인: $\beta = 0.107$, $p < .01$, 기업: $\beta = 0.191$, $p < .001$, 국가: $\beta = 0.176$, $p < .001$). 따라서 ‘낙인’은 ‘위험 인식’과 ‘행동의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정적 감정’ 역시 ‘위험 인식’과 ‘낙인’이 매개되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표 8. 모델별 매개 검정

모델	경로	부스트래핑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신뢰도 하한 -2.5%	신뢰도 상한 +2.5%
개인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083**	0.026	0.082**	0.033	0.132
	부정적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109**	0.039	0.107**	0.035	0.180
기업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189***	0.031	0.216***	0.155	0.268
	부정적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163***	0.030	0.191***	0.127	0.254
국가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173***	0.025	0.211***	0.124	0.222
	부정적감정 →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	0.139***	0.026	0.176***	0.089	0.190

** $p < .01$, *** $p < .001$

5) <연구문제 3> 자아 효능감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위험 관련 이슈에서 예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자아 효능감’이 논의되고 있다 (Kellstedt, Zahran & Vedlitz, 2008; Prentice-Dunn & Rogers, 1986; Ruiter, Abraham & Kok,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이 개인/기업/국가 모델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자아 효능감이 ‘위험 인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낙인’의 매개적 역할을 조절하는지 또한 살펴보았다. 우선, ‘자아 효능감’ 수준에 따라

모델 간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참고 <표 9>, <표 10>)⁷⁾. 경로가 모두 같다고 설정한 모델과 경로를 모두 다르다고 설정한 모델의 동일성 검사 결과, 기업 및 국가 모델에서 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따라서 기업 및 국가 모델은 경로 한 개씩 동등 제약을 걸어 경로계수 동일성 검정을 진행하였으며 모델 간 차이가 나는 경로를 찾아냈다. 경로 계수 동일성 검정에 대한 분석 결과, 기업/국가의 2개 모델에서 각각 6개, 4개의 경로계수가 다를 수 있었다(참고 <표 11>).

다음으로는,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의 2개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를 자아 효능감이 조절하는지 Wald 테스트를 통하여 검정해 보았다.⁸⁾ 기업 및 국가 모델에서 ‘위험인식 → 낙인’, ‘낙인 → 행동의도’의 2개 경로에 대하여 자아 효능감 고저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참고 <표 12>). 즉, 2개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모델에서 자아 효능감 저집단의 낙인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값이 0.524이며, 자아 효능감 고집단은 $\beta = 0.302$ 였다. 국가모델에서도 자아 효능감 저집단의 낙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저집단: $\beta = 0.559$. 고집단: $\beta = 0.361$). 이를 통해 자아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 이미 형성된 ‘낙인’을 활용하여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자아 효능감 고저집단에 따른 모델

	Model	χ^2	df	p	RMSEA	CFI	TLI
개인	경로 모두 같다 가정	166.290	96	0.000	0.066	0.944	0.920
	경로 모두 다르다 가정	140.628	70	0.000	0.078	0.944	0.890
기업	경로 모두 같다 가정	190.095	96	0.000	0.077	0.950	0.929
	경로 모두 다르다 가정	133.832	70	0.000	0.074	0.966	0.934
국가	경로 모두 같다 가정	192.700	96	0.000	0.078	0.951	0.931
	경로 모두 다르다 가정	149.196	70	0.000	0.083	0.960	0.922

7) 자아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라 집단 간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를 모두 다르다고 모델을 설정한 다음, 한 개 경로씩 동등하게 제약을 걸어 모델 간의 χ^2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여 모델을 선택하는 Kenny(2011)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 때 한 개 경로씩 동등 제약을 걸었기에, df의 변화량은 1이며, 변화량이 3.84미만일 경우 영가설(두 모델 간 차이가 없다)을 기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두 개 모델의 경로를 모두 같다고 가정한 경우와 모두 다르다고 가정한 경우에 있어서 동질성 검사를 진행한 이후, 동질성이 미확보된 경우에 경로 1개씩 동등제약을 걸어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의 차이를 확인하여 차이가 나는 해당 경로를 찾아냈다.

8) 본 모형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매개효과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으로 ‘위험인식 → 낙인 → 행동의도’로 가는 2개 경로의 $\beta_1 \times \beta_2$ 가 자아 효능감에 따라 동일하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조절된 매개효과란 매개효과가 조절된다는 의미로 매개효과의 강도나 방향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뜻한다(김수영, 2016). 조절된 매개효과는 조절변수의 조건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조건부 간접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Preacher, Rucker, & Haysm 2007). 보통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해당 경로만을 확인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 변수가 전체 낙인모델을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0. 자아 효능감 고저집단에 따른 모델 비교

Model	$\Delta \chi^2$	Δdf	p	해석
개인	25.662	26	0.4817	동일성 확보
기업	56.263	26	0.0005	동일성 미확보
국가	43.504	26	0.0170	동일성 미확보

표 11. 자아 효능감 고저집단에 따른 모델의 경로계수 동일성 확인⁹⁾

구분	경로	모델의 χ^2	$\Delta \chi^2$	df	p-value
기업	감정반응성 → 인과	149.538	7.040	84	0.01
	중요 → 부정적 감정	154.653	5.049	86	0.02
	부정적 감정 → 위험 인식	163.757	7.029	89	0.01
	부정적 감정 → 낙인	171.970	5.698	91	0.02
	낙인 → 행동의도	182.191	9.273	94	0.001
	감정반응성 → 정서	190.095	7.894	96	0.001
국가	평등주의 → 정서	159.111	6.054	73	0.01
	감정반응성 → 정서	165.287	5.648	75	0.02
	운명주의 → 대처	174.813	6.197	82	0.01
	낙인 → 행동의도	192.700	5.984	96	0.01

표 12. 자아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

		자아 효능감 고		자아 효능감 저		Wald test	p-value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개인	위험 인식 → 낙인	0.277***	0.341***	0.372***	0.513***	2.331	0.1268
	낙인 → 행동의도	0.200**	0.188**	0.339**	0.240**		
기업	위험 인식 → 낙인	0.440***	0.472***	0.510***	0.563***	9.385	0.0022**
	낙인 → 행동의도	0.243***	0.302***	0.520***	0.524***		
국가	위험 인식 → 낙인	0.413***	0.423***	0.426***	0.470***	4.340	0.0372*
	낙인 → 행동의도	0.291***	0.361***	0.488***	0.559***		

*p < .05, **p < .01, ***p < .001

5. 결론

본 연구는 ‘세계관’ 및 ‘감정반응성’이 ‘인지적 평가’((예) ‘정서’, ‘중요’, ‘대처’, ‘인과’)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평가’가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감정’이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감정기반 낙인모델’(Peters et al., 2004)을 적용 및 확장한 연구이다. 본 연구

9) <표 11>에서는 경로 26개에 대한 모든 모델의 χ^2 검정 통계량의 변화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해당 경로계수의 변화량 및 유의도만 제시하였다.

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대하여 이미 진행된 ‘낙인’을 예방 의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에 낙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인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부정적 감정’, ‘위험 인식’, ‘낙인’ 등의 영향력을 낙인모델(Peters et al., 2004)에 기반을 두고 가설로 설정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업/국가 모델에서 피터와 동료들의 연구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기업 및 국가 모델에서 ‘평등주의’와 ‘운명주의’ 세계관에서 ‘인지적 평가’로 가는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피터와 동료들의 낙인모델과는 다소 다른 점으로 낙인모델이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되었을 때 ‘평등주의’ 세계관뿐 아니라 ‘운명주의’ 세계관도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점은 ‘평등주의’와 ‘운명주의’가 ‘인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부호가 상반된다는 점이다. ‘평등주의’는 ‘정서’에 음의 방향, ‘중요’ 및 ‘대처’에 양의 방향인데 반하여 ‘운명주의’는 ‘정서’에 양의 방향이었고, ‘중요’ 및 ‘대처’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개인/기업/국가 모델의 방향성은 모두 같게 나왔으며, 영향력과 가설 검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문화세계관에 따라서 자연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위험 인식에 있어서도 달리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한다(Langford, Marris, & O’Riordan, 1999). 평등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이 파괴되기 쉽다고 가정하고 자연 상태를 변화시키는 미래 세대의 신기술에 대하여 민감하며 전문가나 기관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운명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운을 기본 속성으로 생각하므로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며 위험은 타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한다(Dake, 1991, 1992). 본 연구에서는 세계관의 위험 인식에 대한 직접적 영향 관계는 보지 않았으며 ‘인지적 평가’와 ‘부정적 감정’이 매개된 ‘위험인식’을 확인하였는데, ‘세계관’에 따라 ‘인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평등주의’와 ‘운명주의’ 성향이 상반된 ‘인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낙인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 역시 개인/기업/국가 모델이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개인과 기업 모델은 ‘정서’와 ‘중요성’이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 모델은 ‘정서’, ‘중요성’에 더하여 ‘대처’ 역시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라는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하여, 행동 및 노력에 대한 요구인 ‘대처’는 국가 모델에서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평가에서 ‘정서’가 부정적일수록,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부정적 감정’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서’와 ‘부정적 감정’의 영향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정서’ 보다 ‘인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부정적 감정’이 ‘위험 인식’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험 인

식에 있어서 '세계관' 및 '감정 반응성'이라는 개인적 변수가 '인지평가 요소들'에 영향을 주고 '인지평가 요소들'의 작용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인지평가 요소들'에 의한 '부정적 감정'이 '정서' 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위험은 인지적이면서도 평가 혹은 해석을 통해서 사고하는 감정이라는(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기존 논의를 뒷받침한다.

넷째, '낙인'은 '위험 인식'과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를 매개하며, '부정적 감정'으로 시작하여 '행동의도'로의 간접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기업/국가 모델 모두에서 '낙인'의 '위험 인식'과 '행동의도'에 대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감정' → '위험 인식' → '낙인' → '행동의도'의 간접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섯째,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 변수로 활용되는 '자아 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기업/국가 모델에서 자아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라 경로계수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기업과 국가 모델에서 '위험 → 낙인', '낙인 → 행동의도'의 2개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온난화 이슈에 있어 낙인 대상을 적용함으로서 예방 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이슈와 관련하여 특정 행위에 대해서 개인/기업/국가가 낙인 되는데, 특정 대상의 행위가 인지적 평가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위험 인식, 낙인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낙인이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낙인은 위험인식과 행동의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미 형성된 일반인들의 지구온난화 이슈 관련 낙인을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개인 대상보다는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낙인할 경우, 예방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력 및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세계관'에 따라서 인지적 평가 요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관은 개인적 변수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지만, 세계관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변수로서 집단 및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적용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집단에 대하여 지배적인 세계관을 조사하여 '인지적 평가' 중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집중한 메시지를 개발한다면, 이것이 '부정적 감정' 및 '위험 인식'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인지적 평가 중 평등주의 및 운명주의는 '정서'와 '중요'에 위계주의는 '대처'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집단분석을 통하여 '자아 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업 및 국가 대상으로 낙인한 경우, 낙인의 위험 인식과 행동의도에 대한 매개적 역할에서 자아 효능감

이 이를 조절하였다. ‘자아 효능감’은 기업/국가 모델의 특정 경로를 조절하였는데, 특히 ‘위험 인식 → 낙인 → 행동의도’의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연구문제 3〉의 결과를 통해 지구온난화 관련 낙인 과정에서, ‘자아 효능감’이 낮은 경우 낙인화 자체가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 기업 모델에서는 자아 효능감 저집단의 낙인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값이 0.524이며, 자아 효능감 고집단은 0.302였다. 국가모델에서도 자아 효능감 저집단의 낙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저집단: $\beta = 0.559$, 고집단: $\beta = 0.361$). 이는 자아 효능감이 낮은 경우, 이미 형성된 낙인화를 이용해서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의 ‘감정 기반 낙인모델’을 적용한 모델이지만, 종속 변수에 행동의도를 추가하였으며, 낙인모델을 개인/기업/국가의 3개 범주로 확장하였고, 가설이 채택된 경로에 대하여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기존의 모델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서 이론의 적용 및 확장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기업/국가 범주를 각각 모델링하였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달리 설정되었다. 이 때 발견되는 모델 간 차이점이 범주에 따른 낙인 수준이라 전제하였는데, 범주에 따른 내용 자체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정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범주에 따라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행위를 다른 대상이 하는 경우에 대한 낙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의 낙인모델을 따라 가설을 검정하는 가운데, 구조방정식이 아닌 경로 분석을 진행하여 모형의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더하여 세계관과 감정반응성을 외생 변수로서 활용하였지만 부정적 감정과 위험 인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인지적 평가 요소들 중 ‘정서’만 위험 인식과 낙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모델에 의존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세계관과 감정반응성 등의 개인 변수의 위험 인식 등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인지적 평가 요소의 위험 인식에 대한 직접적 영향 관계 또한 밝혀낼 수 있도록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관을 개인변수로 두고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세계관을 사회 문화적인 집단변수로서 논의하는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인의 과학적 지식수준 등을 통해 미루어볼 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낙인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인이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지구온난화 낙인 대상에 대해서는 그간의 언론보도 및 경험을 통하여 인지적 평가과정을 수반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정적 감정’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고안된 ‘감정 기반 낙인모델’을 연구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낙

인이란 한 번 발생하면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가 매우 어렵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책임전가의 대상은 정부나 대기업이며, 이러한 조직의 특정 행위들은 평가 및 해석과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우기 힘든 부정적 감정을 통한 낙인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 관련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창안할 수 있는 역발상도 가능해진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특히 국가 대상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예방 의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국가 간 협의 및 규제 등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소통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방 의도 등 개인적인 판단 및 노력이 필요한 행위도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감정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의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실제 적용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수들의 영향력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세계관의 적용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위계적 성향이 강한 나라였으나 점차 이러한 문화세계관도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네 개의 문화세계관을 모두 염두에 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세계관에 따라 ‘인지적 평가’의 각 요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뿐 아니라 선행된 연구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지구온난화 이슈를 커뮤니케이션할 때, 네 개 문화세계관에서 각각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아 효능감 역시 위험커뮤니케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 중 하나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의 주요 역할을 설명하고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부정적 감정 형성을 통한 낙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아 효능감이 높은 집단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이슈에 대하여 형성된 부정적 감정이 자아 효능감이 낮은 개인의 행동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형성된 지식이나 부정적 감정, 낙인 등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이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위험은 비단 어느 특정 집단에 속할 수만은 없으며, 과학적 정보에 대한 일방적인 설득 메시지로 일반인의 행동의도를 이끌 수는 없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설문 실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이해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행동 수준은 낮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최광림, 2008). 이제 공중을 이해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관련 예방을 위한 행동의도를 높이는데 있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낙인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도출이 커뮤니케이션 전략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기상청 (2010). Climate change Handbook.
- 김경진·김영옥 (2017). 메시지 프레임과 불확실성 인식이 예방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12, 154-198.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영옥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영옥 (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철·조성겸·김학수 (2009). 기후변화관련 사회적 논의의 변화.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8.
- 박희제·허주영 (2012). 누가 기후변화회의론자인가?. *환경사회학연구 ECO*, 16(1), 71-100.
- 이나경·임혜숙·이영애 (2008). 세계관과 위험지각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635-651.
- 이현주·이영애 (2011). 원자력 발전소와 방폐장 낙인의 심리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31-851.
- 임인재·박성철·이덕환 (2013). 논쟁적 과학이슈에 대한 신문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57(6), 469-501.
- 최광림 (2008). 환경정책에 대한 규제완화와 실용주의적 접근: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 실태조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단일호), 717-741.
- 통계개발원 (2011). 한국의 사회동향 2011.
- 환경부 (2008).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 아시아경제 (2016, 10, 31). '국민 10명 중 9명...'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lford, B. L. (1998). Affect, attribution, and disconfirmation: their impact on health care services evaluation. *Health marketing quarterly*, 15(4), 55-7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Beck, U. (1986). Ris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Aufl., Erstausg.
- Beck, J. V., Cole, K. D., Haji-Sheikh, A., & Litkouhi, B. (1992). Heat conduction using Green's functions (p. 151). London: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Bernstein, L., Bosch, P., Canziani, O., Chen, Z., Christ, R., & Riahi, K. (2008).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IPCC.
- Boykoff, M. T. (2007). Flogging a dead norm? Newspaper coverage of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from 2003 to 2006. *Area*, 39(4), 470-481.
- Boykoff, M. T. (2008). The cultur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discourse in UK tabloids. *Political geography*, 27(5), 549-569.
- Boykoff, M. T., & Boykoff, J. M. (2004). Balance as bias: global warming and the US prestige pres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4(2), 125-136.
- Blaum, D., Griffin, T. D., Wiley, J., & Britt, M. A. (2017). Thinking About Global Warming: Effect of Policy-Related Documents and Prompts on Learning About Causes of Climate Change. *Discourse Processes*, 54(4), 303-316.
- Brechin, S. R. (2010). 10 Public opinion: a cross-national view. Routledge handbook of climate change and society, 179.
- Brenot, J., Bonnefous, S., & Marris, C. (1998). Testing the cultural theory of risk in France. *Risk analysis*, 18(6), 729-739.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319.
- Dake, K. (1992). Myths of nature: Cul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21-37.
- Davis, N. M., Brookes, S., Gray, J. A., & Rawlins, J. N. P. (1981). Chlordiazepoxide and resistance to punish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3(4), 227-239.
- Doran, P. T., & Zimmerman, M. K. (2009). Examining the scientific consensus on climate change. *Eos, Transactions American Geophysical Union*, 90(3), 22-23.
- Douglas, M., & Wildavsky, A.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 techn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ouglas R. Barnes. (1992). From communication to curriculum. Boynton/Cook.
- Ding, D., Maibach, E. W., Zhao, X., Roser-Renouf, C., & Leiserowitz, A. (2011). Support for climate policy and societal action are linked to perceptions about scientific agreement. *Nature Climate Change*, 1(9), 462-466.
- Dunlap, R. E., & McCright, A. M. (2008). A widening gap: Republican and Democratic views on climate change.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0(5), 26-35.
- Dunlap, R., & Jones, R. (2002). Environmental concern: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In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ed. R. Dunlap and W. Michelson. London: Greenwood.
- Easterling, D. (2001). Fear and loathing of Las Vegas: Will a nuclear waste repository contaminate the imagery of nearby places. *Risk, Media and Stigma: Understanding Public Challenges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133-156.
- Ellsworth, P. C., & Scherer, K. R. (2003).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572, V595.
- Flynn, J., Slovic, P., & Mertz, C. K. (1993). Decidedly different: Expert and public views of risks from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Risk Analysis*, 13(6), 643-648.
- Finucane, M. L., Alhakami, A., Slovic, P., & Johnson, S. M.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3(1), 1.
- Finucane, M. L., Slovic, P., Hibbard, J. H., Peters, E., Mertz, C. K., & MacGregor, D. G. (2002). Aging and decision making competence: an analysis of comprehension and consistency skills in older versus younger adults considering health plan option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2), 141-164.
- Forgas, J. P. (1994). The role of emotion in social judgments: An introductory review and an Affect Infusion Model (AI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1), 1-24.
- Frijda, N. H., Kuipers, P., & Ter Schure, E. (1989). Relations among emotion, appraisal, and emotional action rea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2), 212.
- Gasper, K., & Clore, G. L. (1998). The persistent use of negative affect by anxious

- individuals to estimate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50.
- Giddens, A. (2009).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K.
- Goffman, E. (1963). Behavior in public place. Glencoe: the free press, New York.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A model for personality (pp. 246-276). Springer Berlin Heidelberg.
- Gray, J. A. (1991). The neuropsychology of temperament. In Explorations in temperament (pp. 105-128). Springer US.
- Jenkins-Smith, H. (2001). Modeling stigma: An empirical analysis of nuclear waste images of Nevada. Risk, media, and stigma: Understanding public challenges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107-132. London: Earthscan.
- Jones, E. E. (1984).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 WH Freeman.
- Kahan, D. M., Jenkins Smith, H., & Braman, D. (2011). Cultural cognition of scientific consensus. *Journal of Risk Research*, 14(2), 147-174.
- Karasawa, K. (1995). Cognitive antecedents of emotion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37(1), 40-55.
- Kasperson, R. E., & Kasperson, J. X. (2001).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social justice. Stockholm: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 Kellstedt, P. M., Zahran, S., & Vedlitz, A. (2008). Personal efficacy,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attitudes toward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Risk Analysis*, 28(1), 113-126.
- Kenny, D. A. (2011). Multiple groups. Retrieved from: davidakenny. net/cm/mgroups. htm.
- Lazarus, R. S. (2001). Relational meaning and discrete emotions. In K. R. Scherer, A. Schorr, & T. Johnstone (Eds.), Series in affective science.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Theory, methods, research (pp. 37-6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right, A. M. (2010). The effects of gender on climate change knowledge and concern in the American public. *Population and Environment*, 32(1), 66-87.
- McCright, A. M., & Dunlap, R. E. (2011). The politic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s views of global warming, 2001 -2010. *The Sociological Quarterly*, 52(2), 155-194.
- Langford, I. H., Marris, C., & O'Riordan, T. (1999). Public reactions to risk: social

structures, images of science, and the role of trust. *Risk communication and public health*, 33-50.

- Leiserowitz, A. (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1), 45-72.
- Loewenstein, G. F., Weber, E. U., Hsee, C. K., & Welch, N. (2001). Risk as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67.
- Lorenzoni, I., Nicholson-Cole, S., & Whitmarsh, L. (2007). Barriers perceived to engaging with climate change among the UK public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7(3), 445-459.
- Nathan, K., Heath, R. L., & Douglas, W. (1992). Tolerance for potential environmental health risks: The influence of knowledge, benefits, control, involvement, and uncertainty.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4(4), 235-258.
- O'Connor, R. E., Bord, R. J., & Fisher, A. (1999). Risk perceptions, general environmental beliefs, and willingness to address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19(3), 461-471.
- Olofsson, A., & Öhman, S. (2007). Views of Risk in Sweden: Global Fatalism and Local Control—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Ulrich Beck's Theory of New Risks. *Journal of Risk Research*, 10(2), 177-196.
- Oreskes, N. (2004). The scientific consensus on climate change. *Science*, 306(5702), 1686-1686.
- Parcel, G. S. (1984). Theoretical models for application in school health education research. *Health education*, 15(4), 39-49.
- Peters, E. M., Burraston, B., & Mertz, C. K. (2004). An emotion based model of risk perception and stigma susceptibility: Cognitive appraisals of emotion, affective reactivity, worldviews, and risk perceptions in the generation of technological stigma. *Risk analysis*, 24(5), 1349-1367.
- Pew Research Center (2010). Obama more popular abroad than at home, Global image of U.S. continues to be benefit.
- Prentice-Dunn, S., & Rogers, R. W. (1986).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preventive health: Beyond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research*, 1(3), 153-161.
- Rabinovich, A., & Morton, T. A. (2012). Unquestioned answers or unanswered questions:

- beliefs about science guide responses to uncertainty in climate change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32(6), 992-1002.
- Ravetz, J. R. (2011). 'Climategate' and the maturing of post-normal science. *Futures*, 43(2), 149-157.
- Renn, O. (1992). Concepts of risk: a classification. S. Krimsky, &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pp.53~79) Westport, CT:Prager.
- Renn, O., Burns, W. J., Kaspersen, J. X., Kaspersen, R. E., & Slovic, P.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37-160.
- Rippka, R., Coursin, T., Hess, W., Lichtlé, C., Scanlan, D. J., Palinska, K. A., ... & Herdman, M. (2000). *Prochlorococcus marinus* Chisholm et al. 1992 subsp. *pastoris* subsp. nov. strain PCC 9511, the first axenic chlorophyll a2/b2-containing cyanobacterium (Oxyphotobac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50(5), 1833-1847.
- Ruiter, R. A., Abraham, C., & Kok, G. (2001). Scary warnings and rational precautions: A review of the psychology of fear appeals. *Psychology and Health*, 16(6), 613-630.
- Schäfer, M. S., & Schlichting, I. (2014). Media representations of climate change: A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fiel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8(2), 142-160.
- Slovic, P. (1992). Perception of risk: Reflections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Golding and S. Krimsky (Eds.), *Theories of Risk*. New York: Praeger.
- Slovic, P. (2000). Rational actors and rational fools: The influence of affect on judgment and decision-making. *Roger Williams UL Rev.*, 6, 163.
- Slovic, P., Gregory, R., & Flynn, J. (1995). Technological stigma. *American Scientist*, 83, 220-223.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0). Facts and fears: Understanding perceived risk. Societal risk assessment: How safe is safe enough, 4, 181-214.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2), 311-322.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813.

Silver, N. (2012). *The signal and the noise: Why so many predictions fail-but some don't*. Penguin.

Staats, A. W., & Staats, C. K. (1958). Attitudes established by classical conditioning.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7(1), 37.

Weart, S. R. (2008). *The discovery of global warming*. Harvard University Press.

Welzer, H., Soeffner, H. G., & Giesecke, D. (Eds.). (2010). *KlimaKulturen: Soziale Wirklichkeiten im Klimawandel*. Campus Verlag.

Wibeck, V. (2014). Enhancing learning, communication and public engagement about climate change -some lessons from recent literature.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0(3), 387-411.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s Monographs*, 59(4), 329-349.

Wynne, B. (1995).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151.

Zhao, X., Leiserowitz, A. A., Maibach, E. W., & Roser Renouf, C. (2011). Attention to science/environment news positively predicts and attention to political news negatively predicts global warming risk perceptions and policy support. *Journal of Communication*, 61(4), 713-731.

Zehr, S. C. (2000). Public representations of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global climate chang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9(2), 85-103.

Zia, A., & Todd, A. M. (2010). Evaluating the effects of ideology on public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science: How to improve communication across ideological divide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9(6), 743-761.

최초 투고일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7년 12월 4일

〈부록 I〉 변인 간 상관관계

부록 I-1. 개인 대상에게 낙인한 모델의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위계주의	1												
평등주의	-.091	1											
윤명주의	.093	-.153**	1										
개인주의	.264**	.255**	-.165**	1									
부정적 감정 반응성	.034	.367**	.054	.109*	1								
정서	-.019	-.237**	.091	-.129*	-.174**	1							
중요	.099	.340**	-.051	.103	.220**	-.400**	1						
대처	.036	.138*	-.127*	-.006	.049	-.337**	.371**	1					
인파	-.018	.143**	.005	.012	.104	-.247**	.222**	-.045	1				
위험인식	.030	.298**	-.004	.122*	.248**	-.435**	.667**	.316**	.180**	1			
부정적 감정	.121*	.187**	.084	.127*	.085	-.445**	.549**	.351**	.173**	.668**	1		
낙인	.089	.287**	-.020	.097	.180**	-.521**	.578**	.343**	.243**	.782**	.797**	1	
행동의도	.129*	.421**	-.147**	.315**	.175**	-.266**	.264**	.183**	.129*	.249**	.218**	.288**	1

*p < .05, **p < .01

부록 I-2. 기업 대상에게 낙인한 모델의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위계주의	1												
평등주의	-.091	1											
윤명주의	.093	-.153**	1										
개인주의	.264**	.255**	-.165**	1									
부정적 감정 반응성	.034	.367**	.054	.109*	1								
정서	-.002	-.396**	.289**	-.252**	-.250**	1							
중요	.069	.448**	-.267**	.241**	.261**	-.568**	1						
대처	-.082	.231**	-.228**	.002	.132*	-.383**	.387**	1					
인파	.087	.295**	-.026	.139*	.201**	-.283**	.375**	.102	1				
위험 인식	.042	.462**	-.279**	.264**	.268**	-.655**	.762**	.350**	.287**	1			
부정적 감정	.081	.404**	-.216**	.284**	.225**	-.530**	.626**	.340**	.271**	.683**	1		
낙인	.054	.447**	-.253**	.288**	.241**	-.699**	.755**	.381**	.333**	.882**	.713**	1	
행동의도	.129*	.421**	-.147**	.315**	.175**	-.446**	.382**	.290**	.171**	.439**	.495**	.506**	1

*p < .05, **p < .01

부록 1-3. 국가 대상에게 낙인한 모델의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8	10	11	12	13
위계주의	1												
평등주의	-.091	1											
운명주의	.093	-.153**	1										
개인주의	.264**	.255**	-.165**	1									
부정적 감정 반응성	.034	.367**	.054	.109*	1								
절서	-.065	-.412**	.255**	-.221**	-.265**	1							
중요	.106	.353**	-.273**	.250**	.248**	-.595**	1						
대처	.000	.177**	-.219**	.036	.167**	-.434**	.404**	1					
인파	.095	.218**	-.056	.116*	.123*	-.264**	.360**	.052	1				
위험 인식	.062	.460**	-.285**	.295**	.295**	-.681**	.753**	.413**	.267**	1			
부정적 감정	.081	.404**	-.216**	.284**	.225**	-.661**	.806**	.452**	.291**	.797**	1		
낙인	.096	.436**	-.272**	.297**	.267**	-.756**	.766**	.430**	.308**	.884**	.865**	1	
행동의도	.129*	.421**	-.147**	.315**	.175**	-.520**	.402**	.286**	.171**	.521**	.495**	.559**	1

*p < .05, **p < .01

부록 II. '정서', '중요', '대처', '예측', '부정적 감정', '위협 인식', '낙인'에 관련한 25개 문항

			보통			
1) 매우 싫은	1	2	3	4	5	매우 좋은
2) 매우 호감이 가지 않는	1	2	3	4	5	매우 호감이 가는
3) 이후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할 수 없는	1	2	3	4	5	이후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는
4) 행동을 짐작할 수 없는	1	2	3	4	5	행동을 짐작할 수 있는
5) 나의 영향력이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1	2	3	4	5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6) 나의 책임이 없는	1	2	3	4	5	나의 책임이 있는
7) 타인의 영향력이 없는 (타인이 통제할 수 없는)	1	2	3	4	5	타인의 영향력이 있는 (타인이 통제할 수 있는)
8) 타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1	2	3	4	5	타인의 책임이 있는
9)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용납이 안되는	1	2	3	4	5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용납할 수 있는
10) (정신적·육체적) 나의 행동(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1	2	3	4	5	(정신적·육체적) 나의 행동(노력)이 요구되는
11) 전혀 중요하지 않은	1	2	3	4	5	매우 중요한
12) 심각하지 않은	1	2	3	4	5	매우 심각한
13) 별로 화나게 하지 않는	1	2	3	4	5	화나게 하는
14) 피하고 싶지 않은	1	2	3	4	5	피하고 싶은
15) 경멸하지 않은	1	2	3	4	5	경멸하는
16) 혐오감이 들지 않는	1	2	3	4	5	혐오감이 드는
17) (개인에게) 위협이 아닌	1	2	3	4	5	(개인에게) 위협인
18) (사회에) 위협이 아닌	1	2	3	4	5	(사회에) 위협인
19) (환경에게) 위협이 아닌	1	2	3	4	5	(환경에게) 위협인
20) 이기적이지 않은	1	2	3	4	5	이기적인
21) 공동체 의식이 없는	1	2	3	4	5	공동체 의식이 있는
22) 비난을 받지 않는	1	2	3	4	5	비난을 받아야 하는
23) 법적 제재가 필요 없는	1	2	3	4	5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24)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1	2	3	4	5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야 하는
25) 환경 오염 주범으로 낙인 되지 않은	1	2	3	4	5	환경 오염 주범으로 낙인된

Study about Influencing Variables on Stigma:

The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Emotion Based Model of Stigma Susceptibility' in the Context of Global Warming

Hyeyoung Park

Ph. D. Candidate, School of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Yungwook Kim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e general public agrees that global warming is serious, and also know the cause of global warming caused by human activities. Thus, stigma related to certain activities that cause global warming is stigmatized, so stigma related to global warming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stigma model (Peters, Burraston & Merts, 2004) emphasizing 'negative emo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behavioral intentions to prevent global warming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stigmatization was set up in three categories of individual / business / national, all three models were able to produce similar results to the stigma models. In particular, in the national model, the explanatory power of behavioral intentions was the highest at 28 percent, and the influence was also the largest. Second, it revealed the key role of 'negative emotion' through 'cognitive appraisals'. 'Negative emotions' directly affected 'stigma' and indirectly through 'risk perception'. Also, 'negative emotions' through cognitive appraisals had a greater impact on 'risk perception' and 'stigma' than 'affect'. Third, the personal variables 'worldview' and 'emotional reactivity' influenced 'negative emotions' through 'affect' and 'important', and they have indirect effect from 'world view' to 'behavioral inten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we could explain the path of risk perception process according to global warming on each stigma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a result of applying

and expanding the existing stigma model, such as adding 'behavioral intention' variables and testing indirect effects.

Keyword: Global warming, 'Emotion Based Model of Stigma Susceptibility', Worldview, Risk perception, Climate change